

# 노인가계의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2005.12.27

계명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소비자정보학과 유우정  
([hans179@daum.net](mailto:hans179@daum.net))

계명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소비자정보학과 배미경  
([baemik@kmu.ac.kr](mailto:baemik@kmu.ac.kr))

계명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통상학과 권상장  
([sjk272@kmu.ac.kr](mailto:sjk272@kmu.ac.kr))

## 1. 서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적 대책은 자녀나 친척의 보조였으나 핵가족의 가속화로 인해 자식의 부모부양의식은 더욱 더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은퇴기간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가계는 은퇴 후의 경제문제도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해야만 하게 되었다. 때문에 앞으로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소득과 지출 혹은 소비지출 구조나 가계의 순자산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Prather, 1990).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과 그 결과의 상호비교가 용이한 반면 자산보유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 우리나라 가계와 같이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가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재정변수를 조합한 재정비율이다. 재정비율분석은 개인이나 가계로 하여금 재정적 목표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데 유용한 객관적·상대적 측정방법이며(DeVaney, 1993), 측정지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통찰과 효율적 예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측정의 사실성 때문에 재정상태에 대한 판단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집단간 비교 또한 용이하다(Lytton, Garman & Porter, 1991).

## 2. 문헌고찰

### (1) 재정비율의 개념

재정비율이란 원래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비율로서 재무제표 상에 표기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을 뜻한다(박정식, 1997). 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재정비율을 가계에 도입하게 된 것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단순히 소득과 지출 등 한 측면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을 사용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DeVaney, 1993). 즉, 가계가 보유한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수량적 분석은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하지만 가계가 재무적인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순자산 지표를 적용할 경우, 이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주지 못한다(Hong & Swanson, 1995).

가계재정비율은 가계재무상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무상담이나 재무설계 시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진단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양정선, 1997; DeVaney, 1993; Garman & Fogue, 1994; Prather, 1990).

가계의 재정복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재정비율의 특정방법

은 Griffith(1985), Mason과 Griffith(1988)가 처음 개발하였고 이 지표를 Prather(1990)가 처음으로 실증연구에 적용하였다. Prather가 실증연구에 적용한 16개의 재정비율은 순자산의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만들어져 각 가계재무상태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함으로써 가계의 재무목표와 관련된 재무상태, 순자산의 유동화정도, 지불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재정비율의 분석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이 있다. Griffith(1985), Mason과 Griffith(1988)는 분석 대상자의 생애주기, 가족구성, 경제적 상태, 경제적 배경, 그리고 재무관리의 목적과 선호의 측면 등 개별가계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율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rather(1990)도 연령과 소득은 가계의 재정비율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2) 재정비율의 종류

가계재무상태의 평가지표로서 가계재정비율의 도입은 Griffith(1985)에서 찾아볼 수 있다. Griffith는 가계재무상태 분석에 도움이 되는 16개의 재정비율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가계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둔 7가지 재정비율과 부채부담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불능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4가지의 재정비율 그리고 재무구조 중 유형자산의 비중을 측정하는 5가지 재정비율을 제시하였다.

Prather(1990)는 재정비율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Griffith가 제안한 재정비율을 토대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다음 5개의 재정비율이 유용함을 밝혔다. 즉 유동성에 초점을 둔 재정비율 중 유동자산/월평균지출액, 유동자산/총부채, 유동자산/비담보부채, 유동자산/연간부채부담액 그리고 유형자산의 비중을 측정하는 비율 중 주택을 제외한 자산의 순가치/순자산 이었다.

Garman & Fogue(1994)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재정비율로서 총자산/총부채, 연간총소득(가처분소득)/연간부채상환액 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동성은 유동(금융)자산/월평균지출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Winger와 Frasca(1989)는 월평균지출 대신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였고 유동자산/가처분소득을 가계의 비상금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비율이라고 하였으며 유동자산/단기부채비율은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비율로 값이 클수록 건실한 재무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Langrehr와 Langrehr(1989)는 앞선 연구들에서는 연간부채부담대비 유동자산 또는 연간총소득(가처분소득)으로 부채부담 측면에서 가계의 재정사태를 평가한 것과 달리 잔여소득(residual income)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한 부채부담 분석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즉, 잔여소득이란 가처분소득(take-home pay)에서 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임의적 지출을 빼고 부채상환액을 더한 것으로, 필수임의 지출을 고려한 이유는 식품구입이나 편의시설이용, 교통시설 이용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채상환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지출을 고려해야 하며 잔여소득비율(잔여소득/부채상환액)의 사용은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유지할 수 있을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eVaney(1994)는 가계의 파산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

면 유동성비율(유동자산/월평균지출), 총자산/총부채, 그리고 연간총부채상환액/연간가처분소득이 가계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재정비율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찰한 연구에는 양정선(1996)과 최윤지·최현자(1998a, 1998b)의 연구가 있다.

양정선은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무상태 분석에서 모두 10개의 재무비율을 제시하였다. 이중 7개는 외국에서 상용되는 재무비율로서 비상자금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금융자산/월지출액비율,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비율, 유동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총부채비율, 전반적인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총자산/총부채비율과 총부채/순자산비율을 이용하였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실물자산/총부채비율, 부채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총부채/연간총소득비율, 주관적최저생계비/월소득비율과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지출비율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과 그 준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제시된 재무비율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점을 제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서 최윤지·최현자(1998a, 1998b)는 Griffith(1985), DeVaney(1993, 1994) 등이 제시한 재정비율 및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재정비율을 토대로 우리나라 농촌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의 재무비율 즉,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다. 소득대비 소비비율은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초단기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유동성비율 중 월지출액이나 연간가처분소득 대비 유동자산비율은 단기의 유동성지표로서 그리고 순자산 대비 유동자산비율을 장기유동성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재정비율(financial ratio)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소비자 자신의 특성에 따라 혹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비율 각각의 임계치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순희, 2003, p. 63).

첫째, 총부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총부채/총자산)을 측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부채지불능력과 위험수용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다. 만약 소비자가 주택부채가 없을 때에는 이 비율이 최대 0.3,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0.5가 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부채와 유동자산과의 관계(유동자산/단기부채)를 살펴봄으로써 단기지불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그 비율이 1이상이 되면 적합하나 그 비율이 너무 커지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유동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너무 많은 자산비중을 유동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의 순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유동자산/순자산)을 측정하여 소비자단위의 단기목표달성여부를 판단하거나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0.2정도, 즉 순자산의 20%를 유동자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순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투자자산/순자산)을 측정하여

장기목표달성이 얼마나 잘 진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될수록 이 비율의 적합도 판단수치가 높아지는데 보통 형성기까지는 이 비율이 0.2 이하가 되어도 적합하지만, 확대기 후반까지 이 비율이 0.5 정도가 되어 확대기 후반부터 요구되는 자녀결혼자금이나 은퇴 시 소비자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준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연간 가처분소득과 연간 부채지불액과의 관계(연간부채지불액/연간가처분소득)를 봄으로써 소비자의 정확한 총부채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주택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0.2 이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0.4가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분모인 연간 가처분소득 대신에 총소득을 사용하여 비율(연간 부채지불액/연간 총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0.1,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 0.3의 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비자의 월평균 소비지출과 유동자산과의 비율(유동자산/월평균소비지출)을 봄으로써 소비자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중단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득획득 재개시까지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예비자금의 적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보통 이 비율이 최소 2-6은 되어야 예비자금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소득중단 시 소비자단위가 보유하고 있던 유동자산을 활용하여 최소한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일곱째, 총부채와 유동 및 투자자산과의 관계(유동 및 투자자산/총부채)를 보아 주택부채가 없는 경우는 최소 0.5 정도를 유지한다. 즉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으로 총부채의 반 정도는 상환할 여력이 되어야 하며,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외소 0.2-0.3 수준은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연간총소득과 연간주택관련비용과의 관계(연간주택관련비용/연간총소득)를 보아 비율이 0.25-0.3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연간주택관련비용에는 주택마련 대출원금과 이자비용, 세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는데, 소비자의 여력 대비 주택관련 욕구충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자기 집이 없는 소비자가 대출을 이용하여 자기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소득대비 어느 정도까지 주택대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대한계수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비율 각각의 임계치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 이용될 재정비율의 기준은 <표3-1>에서 제시되고 있다.

### (3) 한국의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가계재무비율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순미(1998)는 노인가계를 연령에 따라 집단을 분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득액, 총지출액, 최저생계비액, 총부채액 및 순자산액이 65세 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단지 총자산액만이 두 연령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기지출율과 부채상환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계가 55-64세 노인가계에 비해 불안정하였고 장기

지출율과 유동성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55-64세 노인가계가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양정선(1996)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과 그 준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제시된 재무비율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제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주택마련 및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할당의 적정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재무비율의 구성과 준거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최윤지·최현자(1998a, 1998b)는 우리나라 농촌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의 재무비율-소득 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다. 소득 대비 소비비율은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초단기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유동성비율 중 월지출액이나 연간가처분소득 대비 유동자산비율은 단기의 유동성지표로서 그리고 순자산 대비 유동자산비율은 장기유동성지표로 사용하였다.

최윤지·최현자(1998a)는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의 측정치를 기초로 하여 재정상태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비율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농가의 경우 소득과 자산의 부족으로 초과지출을 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35.3%였다. 소득 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모두 불만족하는 집단의 경우는 지출이 소득의 107%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농촌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의 유입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 중·노년기 가계 모두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동성 자산이 낮게 나타났고, 단기 유동성을 만족하는 가계의 경우에도 장기 유동성 비율에서는 불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실생활에서 현금의 부족과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뜨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시키며, 갑작스런 소득의 단절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미경(2001a)은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재정비율분석에서 제1금융권 자산보유액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감소하였고, 채권과 부동산은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의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구입이 용이해졌다. 또한 보험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재무비율의 변화를 보면 소득 대 소비비율과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정책이나 기타 금융보조정책 등의 고려에 따라 연간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동성비율 중에서도 가처분소득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부채부담비율의 경우에도 소득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부동산의 선호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주거를 부채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미경(2001b)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산상태를 평균보유액으로 비교하였을 때, 채권과 계를 제외한 다른 금융자산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다. 재무비율의 경우,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모두가 근로소득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순자산과 투자자산의 평균보유액은 차이가 없었다.

채은석과 성영애(2000)는 포괄적인 재무비율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재무비율에 관심을 두고 기준설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계에 주관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함으로써 부채관련기준의 설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 부채상환액의 경우는 20만원,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의 비율은 0.2, 부채잔액은 1,500만원이 심리

적 부채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치임을 밝혔다.

최현자(2001)도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부채상한선을 설정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부채부담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저축을 할 수 없으며 40%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지출 및 소비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추출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시도하였고 가계경제의 상태를 안정과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가계재무비율을 안정성비율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고 각각에 포함된 세부비율에 대해서도 의미전달이 명확하도록 명명하였다. 안정성지표에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포함하였으며, 성장성지표에는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를 포함하였다.

성영애·양세정·이희숙·최현자(2004)는 최현자 등(2003)이 제안한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라 가계를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가계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안전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가계는 매우 드물고 반면 안전성과 성장성 모두 부족한 가계가 7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성과 성장성 모두 갖추지 못한 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할만한 결과이며, 성장성은 갖추지 못했으나 안정성은 갖춘 유형의 가계는 21.4%였다.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서울에 거주하고 30대이면서 학력이 높은 봉급생활자일 경우로 보고하였다.

이희숙·양세정·성영애·최현자(2004)의 연구 역시 최현자 등(2003)이 우리나라 가계재무상태 평가를 위해 제안하였던 가계재무비율 및 준거기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계 중 절반은 현재생활에 급급하여 경제적 위험대비나 가계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특성별 재무상태로서 가구주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가계가, 가구주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가계가 가장 바람직한 재무상태를 보였으며 가구주연령별 재무상태는 연령별 즉,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매우 다른 재무상태를 나타냈고, 특히 60세 이상의 가계가 매우 취약한 가계재무상태를 보였다고 한다. 주택보유형태별 재무상태는 전세가계가 자가보유 혹은 월세가계보다 바람직한 재무상태를 보였으며 이는 주택보유로 인한 자산의 유동성 결여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거주지역별 재무상태는 실물자산의 규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실물자산의 시장가치의 지역별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표 2-1> 노인가계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고찰

연구자	논문제목	연구내용 및 결과
양정선 (1996)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과 그 준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제시된 재무비율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제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주택마련 및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할당의 적정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재무비율의 구성과 준거기준의 마련을 제안함.
김순미 (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득액, 총지출액, 최저생계비액, 총부채액 및 순자산액이 65세 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단지 총자산액만이 두 연령집단에서 유사한 수준. 단기지출율과 부채상환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계가 55-64세 노인가계에 비해 불안정, 장기지출율과 유동성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55-64세 노인가계가 불안정.
최윤지·최현자 (1998a, 1998b)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재무비율로 평가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우리나라 농촌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의 재무비율-소득 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함, 소득 대비 소비비율은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초단기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유동성비율 중 월지출액이나 연간가처분소득 대비 유동자산비율은 단기의 유동성지표로서 그리고 순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장기유동성지표로 사용함.
배미경 (2001a)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재정비율의 변화분석	제1금융권 자산보유액 구성비 1997년에 비해 1998년 감소, 채권·부동산 증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구입 용이, 보험보유액 비율 감소. 소득 대 소비비율,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감소.
배미경 (2001b)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재정상태 비교분석	자산상태를 평균보유액으로 비교, 채권, 계 제외한 다른 금융자산에서 두 집단 차이 없음, 재무비율은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모두 근로소득자가 높음, 순자산, 투자자산 평균 보유액 차이 없음.
채은석·성영애 (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 분석	특정 재무비율에 관심을 두고 기준설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함, 가계에 주관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함으로써 부채관련기준의 설정을 시도함, 그 결과 월 평균 부채상환액의 경우는 20만원,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의 비율은 0.2, 부채잔액은 1,500만원이 심리적 부채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치임을 밝힘.
최현자 (2001)	다기간 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부채부담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저축을 할 수 없으며 40%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지출 및 소비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힘.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추출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시도함, 가계경제의 상태를 안정과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가계재무비율을 안정성비율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고 각각에 포함된 세부비율에 대해서도 의미전달이 명확하도록 명명함.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 (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최현자 등(2003)이 제안한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라 가계를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가계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음. 안전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가계는 매우 드물고 반면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부족한 가계의 비율이 높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갖추지 못한 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할만한 결과임.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 (2004)	재무비율로 평가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	최현자 등(2003)이 우리나라 가계재무상태 평가를 위해 제안하였던 가계 재무비율 및 준거기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 우리나라 전체 가계 중 절반은 경제적 위험대비나 가계의 경제적 성장도도모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논자 작성.



### 3. 실증분석

#### (1)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가구패널 조사이며 25개 지역별로 작성된 1차추출단위 조사구명부에서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표본 규모(조사구수)를 결정하였고,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시 크기의 척도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진 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25개 지역별 표본추출률은 서로 다르게 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하게 되는 지역별 자체가중평균이며, 표본가구는 28,647가구이다. 이중 부적격가구를 제외하고 실제 조사된 적격가구수는 27,001가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 55세 이상 노인가계에 해당하는 4,824가구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노인가계의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 55세를 선정한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55세는 사회적 노동의 단절을 의미하는 정년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령이기도 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노인가계의 연령별 자산구성은 ANOVA를 시행하였다. 노인가계의 자산유형별 영향변수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노인가계의 재무비율은 T-test를 시행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정비율을 안정성비율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고 안정성지표에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포함하였으며, 성장성지표에는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를 포함하였다.

4가지 기준자산항목은 Emily Kao(1996)<sup>1)</sup>와 박주영·최현자(1999)<sup>2)</sup>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산분류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금융자산, 위험금융자산, 자가평가액,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으로 나누었다. 안전금융자산은 수익성은 떨어지나 안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자산에 비해 뛰어나 특성을 지닌 자산으로 여기에는 은행상품이 해당된다. 위험금융자산이란 유동성이 실물자산에 비해 높으며 안전금융자산에 비해 잠재적 수익성은 높으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 채권, 개인연금, 계, 사채가 속한다. 자가평가액

1) 안전금융자산(Liquid financial assets)은 현금, 수표계좌, 정기적금 예금을 포함하며 위험금융자산(Illiquid financial assets)은 CD, 주식, 채권, 펀드, 연금, 생명보험으로 구성된다. 자가평가액(Housing equity)은 자가 목적의 주택을 의미하며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Other tangible assets excluding housing equity)은 토지, 자가 이외의 주택, 건물, 분양금(계약금)을 가리킨다. (Emily Kao, 1996, p.45)

2)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

구 분		구 성 요 소
자산포트폴리오	안전금융자산	은행요구불예금, 은행저축성예금, 신용협동조합의 각종예금, 우체국의 각종예금, 상호신용금고의 각종예금, 농수축협동조합의 각종예금, 기타예금, 보험.
	위험금융자산	투자신탁/증권회사의 각종예금, 종합금융/단자회사의 각종예금, 주식, 회사채, 계불입금, 사채준 돈.
	실물자산	토지, 주택(현거주지, 비거주지), 상업용 건물.

(박주영·최현자, 1999, p. 198)

은 자가 목적의 주택을 의미하며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에는 토지, 자가 이외의 주택, 건물, 분양금(계약금)이 해당된다.

<표3-1> 재정비율 측정도구

재무상태 평가지표	개 념	재정비율	준거기준	가이드라인선정 원칙	
안 전 성 지 표	가계 수지 지표	가계소득에 대한 생활비의 비율로 소비성향 과 적자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0.9	낮을수록 좋을 것으로 예상 되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너 무 낮아도 문제
	비상 자금 지표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 득이 중단될 경우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으 로 현재 생활수준을 몇 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1	높을수록 바람직함
		월평균생활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금융자 산에 대한 월평균가계소득의 비중으로 대치 하여 계산할 수 있음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1	높을수록 바람직함
	위험 대비 지표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가계소득에 대비하여 보험료 를 어는 정도 지출하는가를 측정하여 위험 대비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0< <0.2	높을수록 보장수준이 높아 위험대비는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현재의 소비를 위축시킬수 있음
	부채 부담 지표	매월 지출해야하는 부채상환액이 가계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량적인 측면에서 부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부채상환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을 측정하며 다른 소비지출에의 영향력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월평균부채상환액 / 월평균가계소득	<0.25	낮을수록 바람직함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부채상환능력지표이며, 추가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표	총부채/ 금융자산	<10	낮을수록 바람직함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가지고 부 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채청 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총부채/ 총자산	<0.8	낮을수록 바람직함	
성 장 성 지 표	저축 성향 지표	가계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저축하는지를 측 정함으로써 저축성향을 통하여 가계의 성장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0.1	높을수록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됨
	유동성 지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여 가계의 유동성을 알려주는 지표	금융자산/ 총자산	>0.1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특히 노년가계에서 중요함
	투자 성향 지표	자산을 운영하면서 위험은 있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가계경제 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	투자자산/ 총자산	0.05< <0.1	높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질 것이나 위험성도 상대적으 로 증가함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계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실물자산/ 총자산	<0.9	지나치게 실물자산의 비중 이 큰 것은 유동성을 저해 시키는 문제가 있음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 p. 107)

(2) 기초분석

<표3-2>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824)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족원수		2.70	1.32
학령기 아동수		0.20	0.50
수입원수		1.19	1.10
총소득		2257.70	2180.90
근로소득		1029.09	1439.35
사업소득		498.32	1286.05
농림·축어업		8.23	66.46
재산소득(이자, 배당금소득, 임대소득)		268.79	661.05
이전소득(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적보조금)		304.90	516.26
기타소득		148.37	845.15
순자산		13912.62	21803.19
독립변수		빈도	비율(%)
가구주 교육정도	무학	1218	20.16
	초등학교	1835	30.37
	중학교	987	16.34
	고등학교	1219	20.18
	대학(4년제 미만)	84	1.39
	대학(4년제 이상)	622	10.29
	대학원	77	1.27
결혼상태	기혼	3685	76.39
	사별	1019	21.12
	이혼	120	2.49
주식투자 유무	투자하는 가계	4480	92.87
	투자하지 않는 가계	344	7.13
가구주 연령	55-64세	3147	65.24
	65-74세	1394	28.90
	75세 이상	283	5.87
자가주택 유무	소유	3680	76.29
	비소유	1144	23.71
지역	서울	732	15.17
	6대도시	1924	39.88
	군부지역	2168	44.93
취업유무	취업	1822	37.77
	비취업	3002	62.23

<표3-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가계의 가족원수는 평균 2.6명으로 대부분 가구주와 배우자의 핵가족 형태인 것으로 보이며, 학령기 아동수는 평균 0.2명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수는 평균 1.1명으로 총소득의 평균은 2,257만원이며, 순자산의 평균은 13,912만원이었다. 가구주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30.3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20.18%), 무학(20.16%), 중학교 졸업(16.34%), 4

년제 대학 졸업(10.29%), 4년제 미만 대학 졸업(1.39%), 대학원 졸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전체 표본의 76.39%를 차지하는 반면 사별이 21.12%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이혼의 경우 120명(2.49%)으로 기혼이나 사별에 비해 그 비중이 낮았다. 주식투자유무를 살펴보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가계가 전체 노인가계의 92.87%로 노인가계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7.13%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55세 이상 64세가 65.24%로 전체 노인가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74세가 28.9%,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5.87%로 조사되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가계는 76.29%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가계는 23.71%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계가 15.17%로 나타났으며 6대도시의 노인가계는 39.88%, 마지막으로 군부지역의 노인가계는 44.98%로 서울지역과 6대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가구주의 은퇴로 인해 거주지역을 서울이나 6대도시에서 군부지역으로 이동한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가계 중 아직 취업인구에 포함되는 가계는 37.77%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하지 못한 노인가계는 62.23%로 조사되었다.

<표3-3> 노인가계의 연령 및 재정상태

(단위: 만원)

변 수	55-64세 (N=3147)		65-74세 (N=1394)		75세 이상 (N=28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근로소득	1319.95	1537.57	532.37	1077.46	241.43	733.15
소비지출	1656.37	1109.10	1165.91	895.27	953.47	775.85
은행	2321.04	5261.70	1756.23	3802.09	2114.86	5128.15
주식	144.14	889.51	46.16	460.81	20.81	166.32
채권	15.19	402.43	0	0	537.17	8916.54
개인연금	135.49	1052.59	94.58	1144.05	6.16	46.78
계 및 사채	301.01	1908.60	159.17	761.05	138.94	1039.47
자가 이외 주택	7761.64	9370.86	7381.00	9689.50	6995.27	9772.76
토지	2237.65	9017.75	1706.28	6643.56	3756.57	14910.35
자가 이외 주택	1154.33	4644.43	830.78	3724.23	741.59	4033.44
건물	1087.23	8235.27	926.43	7627.23	844.52	8580.69
분양금	36.59	661.22	32.28	974.75	106.01	1783.31

<표3-3>은 노인가계의 연령 및 재정상태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55-64세 노인가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319만원으로 65-74세 노인가계의 연평균 근로소득인 532만원보다 약 2.5배 정도 많은 금액이며,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241만원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변화는 연령증가에 따른 가구주의 취업률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55-64세 노인가계는 연평균 1,656만원, 65-74

세 노인가계는 1,165만원,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953만원으로 모두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소비지출 역시 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가계의 근로소득을 초과한 소비지출은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양세정·성영애(2001)에서 밝힌 노인가계의 소득원천 중 사회보장제도나 자식들에게서 비롯되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20.3%로 높은 수준이며 재산소득 또한 비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금융자산 중 은행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가 가장 많은 2,321만원이며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2,114만원, 65-74세 노인가계가 1,756만원 순이다. 주식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가 평균 144만원, 65-74세 노인가계가 46만원이며,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는 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함을 보여준다. 또, 일반적으로 노인가계는 미래에 대한 소득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자자산의 비중을 적게 하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채권보유액은 65-74세 노인가계의 경우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55-64세 노인가계는 15만원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537만원으로 조사되어 주식보유액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각각 135만원, 94만원, 6만원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고 계 및 사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물자산 중 자가주택의 경우 55-64세 노인가계는 7,761만원, 65-74세 노인가계는 7,381만원,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6,995만원으로 세 그룹 모두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금액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가계가 총자산액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연정(1998)은 노인가계가 주택을 유동화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보유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토지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2,237만원에서 65-74세 노인가계는 1,706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3,75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자가 이외 주택과 건물보유액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분양금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와 65-74세 노인가계는 별 차이가 없으며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10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노인가계 재정비율 분석

노인가계의 재정비율 분석을 위해 자산유형과 가계재정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노인가계의 연령별, 자산상태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비교하였다. 또,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른 4가지 자산항목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표3-4> 자산유형과 가계재정비율의 상관관계

(N=4824)

	안전성 지표							성장성 지표			
	가계수지 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 지표	부채부담지표			저축성향 지표	유동성 지표	투자성향지표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자산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보험료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부채 상환액 /월평균 가계소득	총부채/ 금융자산			총부채/ 총자산	연간 총저축액 /연간 가처분 소득
안전금융 자산	-0.03	0.78*	0.55*	0.07*	-0.02	-0.04	-0.04	0.78*	0.06*	0.08*	-0.10*
위험금융 자산	-0.01	0.08*	0.06*	0.25*	-0.01	-0.01	-0.01	0.08*	-0.36*	-0.27*	-0.04
자가 평가액	-0.04	0.16*	0.10*	0.04*	-0.02	-0.02	-0.02	0.16*	-0.09*	-0.05	0.07*
자가 이외 실물자산	-0.01	0.15*	0.07*	0.03*	-0.0044	-0.0028	0.0002	0.15*	-0.05	-0.03	0.07*

\*p<0.001

<표3-4>는 자산유형과 가계재정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금융자산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투자성향지표의 실물자산/총자산만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험금융자산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중 투자자산/총자산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동성지표와 투자성향지표의 투자자산/총자산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자가평가액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중 실물자산/총자산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동성지표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가 이외 실물자산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중 실물자산/총자산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산유형과 가계재무비율의 상관관계는 자가 이외 실물자산 보유액이 많을수록 재정비율지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가계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N=4824)

재무상태 평가지표		해당 재정비율	준거기준	평균	표준 편차	준거기준 만족가계(%)
안 전 성 지 표	가계수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0.9	0.92	1.68	64.26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	1.37	2.52	33.91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	1.09	2.53	25.70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 <0.2	0.04	0.34	8.93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	0.01	0.07	99.01
총부채/금융자산		<10	6.77	72.46	94.09	
		총부채/총자산	<0.8	5.26	61.02	81.63
성 장 성 지 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0.1	1.37	2.52	75.37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1	0.88	0.25	88.45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05< <0.1	0.90	0.23	0.68
		실물자산/총자산	<0.9	38.74	165.77	28.88

<표3-5>는 가계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계수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의 비율은 64%이며 가계수지표의 평균은 0.92로 월평균가계소득의 92%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자금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각각 33%, 25%로 조사되었고 월평균생활비나 월평균가계소득에 대비한 금융자산의 비율은 1.37, 1.09로서 만일의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대비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의 비율은 안정성지표 중 가장 낮은 8%로 나타났으며 월평균가계소득의 4%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이 99%로 대부분의 노인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월평균소득의 1%를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금융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94%, 총부채/총자산의 준거기준만족가계 비율은 81%인데 반해 금융자산에 대비하여 부채의 규모는 6배나 되고 부채규모를 총자산에 대비하면 5.26으로 준거기준인 0.8보다 높았다. 이는 총자산을 가지고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계도 상당히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노인가계 경제구조의 취약함을 보여준다.

성장성지표 중 저축성향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75%로 나타났으며 유동성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가계는 88%였다. 평균적인 저축성향은 1.37로 이는 연간가처분소득의 1.37배를 저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동성지표는 평균 총자산의 88%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투자성향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각각 0%, 28%로 노인가계의 투자성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총자산의 90%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3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가계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인가계의 경제적 계층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표3-6> 노인가계 연령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비교

재무상태평가지표		55-64세(N=3147)			65-74세(N=1394)			75세 이상(N=283)			
		평균	표준 편차	준거기준 만족가계(%)	평균	표준 편차	준거기준 만족가계(%)	평균	표준 편차	준거기준 만족가계(%)	
안 전 성 지 표	가계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0.86	0.78	68.57	1.04	2.87	58.11	1.07	0.69	46.64
	비상자금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1.31	2.33	34.51	1.40	2.61	33.64	1.82	3.72	28.62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0.97	2.38	24.56	1.24	2.53	28.05	1.70	3.69	26.86
	위험대비 지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0.04	0.24	11.57	0.05	0.51	4.38	0.0026	0.02	2.12
	부채부담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가계소득	0.01	0.06	98.86	0.01	0.11	99.57	0.01	0.04	98.94
		총부채/금융자산	6.01	52.01	93.77	4.88	44.05	94.40	25.86	231.39	96.11
		총부채/총자산	3.85	21.32	79.47	4.69	43.92	84.51	25.73	230.90	91.52
성 장 성 지 표	저축성향 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1.31	2.33	77.18	1.40	2.61	73.53	1.82	3.72	64.31
	유동성 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86	0.27	89.07	0.91	0.22	88.31	0.95	0.18	82.33
	투자성향 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88	0.25	0.79	0.93	0.20	0.57	0.96	0.15	0
		실물자산/총자산	33.52	166.99	26.85	42.76	144.20	31.56	81.87	236.36	38.16

<표3-6>은 노인가계 연령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계수지지표는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월평균가계소득의 86%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이 68%로 노인가계의 세 집단 가장 높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58%, 46%로 낮아지며 75세 이상의 노인가계는 월평균소득의 1.07배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며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이 절반인 50%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상자금지표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는 55-64세 노인가계는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이 34%, 65-74세 노인가계와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각각 33%, 28%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55-64세 노인가계가 24%, 나머지 가계가 각각 28%, 26%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경우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할 경우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의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대비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55-64세 노인가계가 11%로 가장 높고, 나머지 가계들이 각각 4%, 2%로 나타났으며 55-64세 노인가계는 월평균가계소득의 4%, 65-74세 노인가계와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각각 5%, 0.26%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의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매우 미흡함을 보여준다.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55-64세 노인가계와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98%, 65-74세 노인가계가 98%로 대부분의 노인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모두 월평균소득의 1%를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다. 총부채/금융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역시 각각 93%, 94%, 96%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금융자산에 대비하여 부채의 규모는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6배, 65-74세 노인가계는 4배,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2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91%로 가장 높았고 65-74세 노인가계가 84%, 55-64세 노인가계가 79%로 나타났으며 55-64세 노인가계의 평균이 3.85, 나머지 가계가 각각 4.69, 25.73으로 준거기준인 0.8보다 높았다. 이는 총자산을 가지고도 부채를 모두 갚지 못하는 노인가계도 상당히 있음을 보여준다.

저축성향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각각 77%, 73%, 64%였으며 55-64세 노인가계의 평균은 1.31로 이는 연간가처분소득의 1.31배를 저축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나머지는 각각 2.61, 1.82로 연간가처분소득의 2.61배와 1.82배를 저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동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55-64세 노인가계가 89%, 65-74세 노인가계가 88%,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82%로 나타났으며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각각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86%, 91%, 95%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투자성향지표에서 투자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55-64세 노인가계가 0.79%, 나머지 가계가 각각 0.57%, 0%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이 총자산의 88%, 93%, 96%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성향지표 가운데 실물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을 살펴보면, 55-64세 노인가계가 26%, 65-74세 노인가계가 31%,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38%로 나타났으며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33배, 42배, 81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7> 노인가계 자산상태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비교

재무상태평가지표			자산수준 하위 25% (N=1206)		자산수준 25-50% (N=1210)		자산수준 50-75% (N=1203)		자산수준 상위 25% (N=1205)		F test
			평균	준거기준 만족가계 (%)	평균	준거기준 만족가계 (%)	평균	준거기준 만족가계 (%)	평균	준거기준 만족가계 (%)	
안 전 성 지 표	가계 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0.99	50.91	1.00	63.22	0.88	69.83	0.82	73.11	3.25 *
	비상 자금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0.43	12.69	0.73	22.40	1.42	40.98	2.89	59.67	267.05 ***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0.37	7.71	0.62	15.45	1.15	32.00	2.21	47.72	136.87 ***
	위험 대비 지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0.01	4.31	0.02	8.60	0.03	10.39	0.09	12.45	13.62 ***
	부채 부담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가계소득	0.01	99.17	0.01	98.35	0.01	98.92	0.00	99.83	2.26
		총부채/금융자산	9.26	91.21	6.31	92.73	10.23	95.26	1.66	97.18	3.18 *
총부채/총자산		7.90	81.01	5.67	76.45	6.50	81.96	1.40	87.14	2.35	
성 장 성 지 표	저축 성향 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0.43	55.64	0.73	70.91	1.42	85.20	2.89	89.79	267.05 ***
	유동성 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93	80.27	0.89	87.93	0.88	93.10	0.82	92.53	31.72 ***
	투자 성향 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93	0.66	0.90	0.50	0.90	0.33	0.87	1.24	14.76 ***
		실물자산/총자산	13.06	77.45	47.49	15.04	43.48	10.37	47.81	12.70	10.56 ***

\* p<0.05, \*\* p<0.01, \*\*\*p<0.001

<표3-7>은 노인가계 자산상태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과 총부채/총자산은 자산수준별 평균의 차이가 없었다. 또,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중 총부채/금융자산, 저축성향지표는 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이 증가하였다.

유동성지표는 자산수준 50-75%의 가계가 93%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투자성향지표 중 투자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비율은 자산수준 상위 25% 가계가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자성향 중 실물자산/총자산은 자산수준 하위 25%의 가계가 77%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요약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가계재정비율 및 재정비율의 준거기준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연령 및 재정상태는 소비와 소득 모두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 개인연금, 계 및 사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가계의 실물자산 중 자가주택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자가 이외 주택과 건물보유액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노인가계 재정비율 분석을 보면 가계수지표(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를 만족하는 가계가 약 64%로 나머지 36%의 가계는 매월 소득의 9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저축성향지표(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이 75% 정도라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전체 노인가계의 25% 정도는 현재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해야만 하는, 현재 생활에 급급한 가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대비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는 8.93%를 보여 경제적 위험대비에 취약한 가계가 91%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비상자금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은 약 33%, 25%로 만일의 사태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가 절반도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부채부담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은 99%, 94%, 81%로 나타났다. 유동성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은 88% 총자산의 88%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투자성향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은 각각 0%, 28%로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투자자산 보유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이 안정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노인가계의 자산상태별 재정비율을 살펴보면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과 총부채/총자산이 자산상태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을 보면 가계수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부채부담지표 중 총부채/금융자산은 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른 자산별 평균 비교를 살펴보면 안전금융자산은 가계수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부채부담지표 중 총부채/금융자산, 총부채/총자산, 투자성향지표 중 투자자산/총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금융자산은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상태평가지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 자가평가액과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은 동일하게 가계수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중 실물자산/총자산에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부담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높지만 전자산을 가지고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계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와 투자성향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낮지만 실물자산이 총자산의 38배나 된다는 결과는 최저층에 있는 노인가계의 빈곤 지수가 상당히 높을 것임을 추정하게 해 준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정관리 시 상당한 숫자의 가계들이 재정적 성장의

어려움은 물론 가족의 질병, 사고, 실업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부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재정비율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보면 절대적 소득이 부족할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은 소득수준일지라도 그 소득 내에서 소비지출 비중을 최소화하여 저축과 보험에 주어진 소득을 할당해야 한다는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계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어 재무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는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노인가계를 유형화하고 노인가계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가계 재무상태의 평가들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구체적인 경제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노인가계에게 가계재무계획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가계재무계획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자에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정책의 기본선 설정에 도움을 주며 최저층에 있는 노인가계의 소득안 창출, 조세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는 예비노인가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년기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넷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기관에는 초·중년기에 있는 가계로 하여금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연정. (1998a).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김연정. (1998b).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연정. (1998c).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학회 제1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37-63.
-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 (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문숙재, 김순미. (1997).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문숙재, 양정선. (1996).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분석: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09-120.
- 민재성. (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배미경. (2001a).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재정비율의 변화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211-223.
- 배미경. (2001b).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박주영, 최현자. (1999). 자산계층별 가계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93-206.
- 성영애. (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성영애, 양세정. (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및 관련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 (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 양세정, 성영애. (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양정선. (1996).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여운경. (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 이희숙, 신상미. (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6.
-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 (2004). 재무비율로 평가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 **한국소비문화학회**, 7(3), 59-84.
- 채은석, 성영애. (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 최윤지, 최현자. (1998a).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윤지, 최현자. (1998b). 재무비율로 평가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9(1), 43-54.
- 최현자. (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최현자. (2001).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79-291.
- 최현자, 이희숙, 성영애, 양세정. (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2.
- Bae, M. K., Hanna, S. & Lindamood, S. (1993). Patterns of overspending in U. S. househol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0.
- Bryant, W. K. (1986). A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35.
- Crystal, S. & Shea, D. (1990).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3), 227-247.
- Davis, A. M. (1993).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223-227.
- DeVaney, S. A. (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DeVaney, S. A. (1994).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3.
- Emily Kao. (1996). A test of the life-cycle-permanent-income hypothesis: Cohort analysis of household wealth and portfolio holdings. Ph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
- Francis, J. C. (1988). *Management of Invest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Garman, E. T. & Fogue, R. E. (1994). *Personal Finance*(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 (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Hanna, S. & Prather, C. (1989). Net worth over the life cycle. Proceeding of the Family Economics Home Management Section of AHEA.
- Hira, T. K. (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83-194.
- Hong, G. S. & Swanson, P. M. (1995). Comparison of financial well-being of older women: 1977 and 1989.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29-138.
- Kennickell, A. & Shack-Marquez, J. (1992). *Change in family finances from 1983 to 1989*. Federal Reserve Bulletin.
- Langrehr, V. B. & Langrehr, F. W. (1989). Measuring the ability to repay: The residual

- income ratio.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2), 393-406.
- Lytton, R. H., Garmen, E. T. & Porter, N. 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 Prather, G. G. (1990). The ratio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70.
- Ramaswami, S. N., Srivastava, R. K. & McInosh, T. H. (1992). An exploratory study of portfolio objectives and asset holding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9, 285-306.
- Schulz, J. H. (1992). *The Economics of Aging*(5th ed.). Auburn House.
- Titus, T. M. Fanslow, A. M. &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8.
- Wang, H. (1995).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among elderly households: An analysis using the Gini coefficient. *FERM Biennial*, 179-184.
- Weagley, R. O. & Gannon, C. F. (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154.
- Winger, B. J. & Frasca, R. R. (1989). *Personal Finance*,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 Xiao, J. J. & Olson, G. I. (1993). Mental accounting and saving behavio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1), 92-109.
- Xiao, J. J. (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99-106.
- Xiao, J. J. (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21-30.